

결해(가제)

1. 사무실 (실내/낮)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리는 어느 회사 사무실.

사무실 에는 인쇄되는 프린트 소리와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가 가득하다
마치 골목시장의 시끌벅적한 소리와 같다.

한 책상엔 어질러져있고 그 옆엔 낡은 장난감이 놓여져 있다.

그앞엔 장현우(32/남)가 수화기를 들며 앉아있다.

현우는 전화기를 어깨와 턱 사이에 놓고, 바쁘게 메모를 적는 동시에 키보드를 치고 있다.

멀리서 보는 사무실의 회사원들은 현우와 똑같이 행동하고 있다.

2 버스정류장/버스 (실외/밤)

어둠속 가로등 사이에 빨간색 빛의 차들이 줄지어 서 있다.

현우는 한 버스정류장 의자에 앉아 버스를 기다리고 있다.

현우는 앞사람 에 이어 버스를 탄다.

CUT TO

현우는 창문 너머 먼 곳을 바라보며 무표정으로 머리를 기대고 있다.

버스는 어느 한 정류장에 정거하고, 현우는 집 근처 정거장에서 내린다.

버스에서 내린 현우는 곧바로 어두운 골목길로 발걸음을 옮긴다.

3. 골목길 (실외/밤)

골목길엔 부분부분 주황색의 가로등이 있고, 낡은 지붕의 주택들이 가득하다.

그 사이엔 경사가 높은 낡은 계단이 보인다..

멀리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현우의 뒷모습이 보인다.

현우는 계단을 올라와 문 앞에 잠깐 발걸음을 멈춘다.

이어서 고개를 돌려 반대편 도시를 바라본다.

도시는 밝은 빛을 띄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온다.

어깨가 축 늘어진 현우는 한숨을 크게 쉬고, 뒤로돌아 집의 문고리를 잡는다.

4. 집 거실 (실내/밤)

현우는 집안을 들어선다. 이어 눈앞에는 장난감으로 어질러진 바닥과

시끄러운 아버지의 소리, 이를 달래는 듯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어머니는 들어온 현우를 보고 고생했다는 말을 빠르게 하고나서 다시 아버지의 장난감을 뺏았
으려고 한다.

아버지 손에는 침으로 가득 묻어있는 장난감이 들려있다.

현우는 무표정으로 이를 훑어보고 방안으로 들어간다.

5. 현우의방 (실내/아침)

아침이 찾아온 현우의 집. 잠에서 깬 현우는 급하게 일어나 시간을 확인한다.

휴대폰 시간은 8시 20분을 가르킨다.

현우는 급하게 출근 준비를 하고나서 방에서 나간다.

6. 집 거실 (실내/아침)

주방엔 아버지에게 밥을 떠먹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현우에게 조금이라도 밥을 먹고 나가라는 어머니.

현우는 늦었다는 말과 동시에 급히 현관문을 열고 나간다.

쿵 달힌 소리를 들은 아버지는 오물오물 밥을 먹으며 현관문을 멍하게 쳐다본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흘린 밥풀을 줍고 있다.

7. 사무실 (실내/아침)

낡은 장난감과 어질러져 있는 책상.

평소처럼 바쁜 일상을 보내는 현우.

현우의 공간엔 전화소리와, 키보드 치는 소리로 가득하다

CUT TO

시계를 쳐다보는 현우. 시계바늘은 12시를 가르킨다.

현우는 서류를 움켜 쥐다가 내려놓고, 눈을 감으며 한숨을 내뿜는다.

이때 휴대폰의 진동소리가 들려온다.

소리를 듣고 깜짝놀란 현우는 등지고 있던 의자에서 허겁지겁 허리를 떼며, 전화기를 집는다.

액정화면에는 ‘어머니’라고 나와있다.

통화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받는 현우.

전화기 너머로 어머니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린다.

아버지가 사라졌다는 내용이다.

현우는 눈을 질끈 감으면서 한숨을 한 번 내쉬고, 알겠다는 말을 하고 바로 전화를 끊는다.

전화를 끊은 현우는 머리를 움켜쥐며 책상에 고개를 숙인다.

고개숙인 현우의 책상 옆쪽엔 업무자료가 쌓여져있다.

한참을 고개를 숙여 생각을 하던 현우는 고개를 들고 쌓인 업무자료를 쳐다본다.

현우는 휴대폰을 책상에 “쿵” 놓으며 업무를 이어간다.

하지만 현우는 아버지 생각에 신경이 쓰인다.

현우는 고개를 젓히며 정신을 차리려고 한다.

그렇게 현우는 계속 업무를 보다가 무심코 책상 위에 있는 낡은 장난감을 보게된다.

낡은 장난감을 본 현우는 생각에 잠긴 듯 천장을 보며 한숨을 내뿜는다.

8. 슈퍼마켓(실외/해질 녘) -회상

슈퍼마켓 앞 창문에 장난감이 전시되어있다.

현우는 창문에 손을 얹고 장난감을 보면서 감탄한다.

유리창 안에 있는 장난감이 보인다.

그 장난감을 보고있는 현우의 옆모습 너머 멀리서 터덜터덜 봉지를 들고 오고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

아버지는 어깨가 축 늘어진 채 바닥을 보며 걸어온다.

멀리서 무언가를 보고 있는 현우를 발견하는 아버지.

아버지는 현우를 부르며 힘차게 걸어온다.

아버지는 “우리 아들 여기서 뭐해, 아빠 기다린거야?” 라며 현우에게 웃으며 말한다.

현우는 유치장 안에 있는 장난감을 손으로 가리키며 장난감을 사달라고 한다.

아버지는 당황한 표정으로 “이.. 이거?”라며 말하고 나서 주머니에 있는 지갑을 꺼낸다.

지갑 안에는 여러 영수증과 천 원 몇 장이 들어있다.

아버지는 현우에게 잠시 기다리라 말하고 슈퍼마켓에 들어간다.

현우는 힘차게 대답을 한 뒤에 다시 장난감을 훑어져라 본다.

멀리서 아버지는 사장님에게 머리를 굽적이며 급신하는 모습이 보인다.

슈퍼마켓에는 “다음달에 꼭 드릴게요” 라는 말이 들린다.

아버지는 장난감이 봉지를 들고 나와 현우에게 건넨다.

이를 받고 현우는 기쁘게 웃는다.

현우는 행복한 표정을 하고 아버지를 안는다.

9. 골목길 계단(실외/ 해질 녘) - 회상

현우를 업고 골목길 계단을 오르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이 보인다.

아버지의 등에 업혀있는 현우는 장난감을 손에 들고 놓고 있다.

아버지는 업혀있는 현우를 흐뭇하게 바라본다.

멀리서 현우를 업고 골목길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보인다.

10. 슈퍼마켓 인근 (실외/낮->해질 녘)

현우는 허겁지겁 아버지를 찾기 시작한다.

현우는 초조하고 불안감에 휩싸인 듯한 표정을 하며 여러 곳을 뛰어 아버지를 찾아다닌다.

급하게 뛰어다니던 현우는 어릴 적 아버지를 기다리던 슈퍼마켓으로 뛰어간다.

11. 슈퍼마켓 (실외/해질 녘)

풀어진 넥타이, 땀에 젖은 앞머리, 가쁜호흡을 하고있는 현우 의 모습이 보인다.

현우 뒷모습 너머로 반바지를 입고 낡은 정장과 넥타이를 매고있는 아버지가 보인다.

아버지는 혼자서 평상에 앉아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
멀리서 아버지를 바라보고있는 현우.
현우는 그 자리에서 안심, 미안함.. 복잡한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본다.
현우는 전화기를 들어 어머니에게 전화를 한다.
아버지를 찾았으니 같이 집으로 가겠다 말하고 나서 전화기를 다시 주머니에 넣는다.
아버지는 여전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
현우는 아버지에게 걸어가 안으면서 미안하다는 말을 전한다.
아버지는 여전히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있다.
현우는 아버지에게 이제 들어가자는 말과 함께 아버지를 일으켜 세운다.

12. 골목길 (실외/해질 녘)

아버지를 업고 골목길 계단을 오르고 있는 현우의 모습이 보인다.
현우의 등에 업혀있는 아버지는 장난감을 손에 들고 놀고 있다.
현우는 업혀있는 아버지를 보며 미소를 띤다.
멀리서 아버지를 업고 골목길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현우의 뒷모습이 보인다.

13. 현우의 집 (실내/낮)

넥타이를 매는 장면이 나온다.
현우는 아버지의 넥타이를 매주고 있다.
아버지와 현우는 정장을 입고 있다.
현우는 아버지에게 “이렇게 입으니까 아빠 진짜 멋있네?~” 말하며 흐뭇하게 아버지를 본다.
아버지는 장난감을 손에 쥔 채 그저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다.
현우는 어머니에게 준비되었으니 나가자는 말을 하며, 현우의 가족은 멋진 차림으로 문을 나선다.

14. 사진관 (실내/ 낮)

사진기사 목소리가 들려온다.
카메라 앞에 선 사진기사는 현우가족에게 포즈를 알려준다.
사진기사는 ‘왜이렇게 아들이 어색해해’ 하며 긴장을 풀어준다.
현우는 사진기사에게 사진을 정말 오랜만에 찍어봐서 어색하다며 멋쩍게 웃는다.
사진기사는 ‘그래도 아들이 먼저 다가가야지’ 라고 말한다.
현우는 어색하고 쭈뼛쭈뼛 하며 사진을찍는다.
아버지는 여전히 장난감을 가지며 놀고 있다.
사진기사가 찍은 사진속 아버지는 여전히 장난감을 허공에 들고 웃으면서 놀고 있다.
어머니는 허겁지겁 아버지의 장난감을 빼앗으려고 하고,
현우는 활짝 웃고 있다.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어릴 때 나는 아버지의 등을 보며 자랐다.. 그런데 커서는 지금 내 등을 보며 아버지를 짊어

진다. 이 무게가 이토록 큰지 어렸을 적 나는 몰랐다...